



# 쇼핑백과 케이스가 합쳐졌네

## 한진피앤씨 특허 획득 ... 매출신장 효과

신발업체인 무크, 주류업체인 SK네트웍스, 금양인터내셔널, 길진인터내셔널, HJ상사, 국순당, 배상면주가, 정제·식용유업체인 오투기식품, 매일유업, TDF코리아, 군인공제회 제일식품, 커피·다류업체인 동서식품, 한국네슬레, LG생활건강, 다익인터내셔널, 제이엘, 식품·제과업체인 농심, 크라운제과, 인삼·홍삼업체인 소백인삼, 그린컬쳐, 누림, 제약업체인 MCBN, 화장품업체인 이지함, 코리아나, LG생활건강, 대구한의대, 미디어 일진아트.

이들 업체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요즘 상업 및 패키지인쇄 전문업체인 한진피앤씨(대표이사 이수영)와의 전화 통화와 포장담당자들의 왕래가 빈번하다. 이유는 한진피앤씨가 최근 자체 연구개발해 특허를 받은 별도의 쇼핑백이 필요없는 '백 타입 케이스(서랍형 포장 인쇄물)' 때문.

### 식품회사 매출 130% 증가

2006년 식품회사인 오투기는 한진피앤씨가 개발한 '백 타입 케이스'를 일부 제품에 활용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백 타입 케이스는 서랍식으로 만들어진 상자에 끈을 단 포장으로, 쇼핑백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투기는

추석과 설에 내놓은 포도씨유와 올리브유 선물세트에 이 포장을 사용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2006년에는 일부 올리브유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으로 올리브유 매출이 떨어지던 시기였다. 오투기는 포장 교체가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투기의 사례가 알려지고, 전 사회에 출품되어 소개되면서 식품회사는 물론 제과, 생활용품, 위생용품 업체 등에서 백 타입 케이스의 주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출 상담이 들어오고, 일본에는 제품 선적까지 마쳤다.

한진피앤씨는 2008년 1월 7일자로 최근 2년여 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백 타입 케이스(서랍형 포장박스)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어 국제특허도 출원했다.

### 쇼핑백과 케이스가 결합된 일체형

한진피앤씨가 특허를 낸 백 타입 케이스는 쇼핑백과 케이스가 결합된 일체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선물세트 등 세트화된 상품 구성은 세트 상자와 이를 운반하기 위한 쇼핑백이 필수였다.

그러나 한진피앤씨의 백 타입 케이스는 선물세트 상자와 케이스를 통합해 쇼핑백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장에서 세트 작업시 쇼핑백을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 소비자는 쇼핑백에 담은 번거로움을 해소



백 타입 케이스를 사용한 상품들.



하면서도 별도로 쇼핑백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백 타입 케이스는 서랍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매장에서 제품 진열시 케이스의 손상없이 언제든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파손의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서랍식 포장에서는 취급이 불편해 떨어트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백 타입 케이스는 별도의 잠금장치 효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백 타입 케이스는 헤드부분의 입체효과를 이용해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진열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보관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고 난 후에는 별도의 수납장으로 재사용 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 영업·개발팀 합작연구로 특허까지

백 타입 케이스 개발은 영업부 강승오 과장의 아이디어와 제품개발부 김명대 차장의 연구로 이루어 낸 합작품. 강승오 과장은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제품 포장에 따른 시간, 비용, 인력 낭비를 줄이면서 멋진 패키지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명대 차장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강 과장의 제의가 회사 발전과 패키지 산업발전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품 개발에 착수, 1년여의 연구 끝에 백 타입 케이스를 개발했다고.

김 차장은 2차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 절감 및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일거양득이며 소비자들 또한 비용절감과 쓰레기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제품판매 업체와 소비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영업과 제품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윤주호 부장은 이



백 타입 케이스 개발을 주도한 윤주호 부장·김명대 차장·강승오과장(왼쪽부터)



번에 특허를 받은 백 타입 케이스는 내용물이 30kg까지 들어가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하며 고객이 상품을 가져오면 거기에 맞게 백 타입 케이스를 제작해 주는 맞춤형 패키지여서 더욱 인기가 있다면서 이 제품이 2008년 한진피앤씨의 주력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또 인쇄업체들로부터 문의가 자주 오는 것과 관련 “로열티를 받는 것은 곤란하지만 OEM방식으로는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피앤씨는 백 타입 케이스의 특허 획득 외에도 ‘판지포장박스의 상면 손잡이 장치’를 실용신안 등록했으며 손지갑형 박스, 소형상품 포장박스, 일회용 컵 캐리어, 일체형 2단 포장박스는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또 소형상품 포장박스와 포장용 박스(2단 일체형·H형)에 대한 디자인 등록도 마친 바 있다. 회사 측은 김명대 차장과 강승오 과장의 공을 높이 사 포상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올 매출 목표 900억원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진피앤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장·상업인쇄 업체로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판지 상자, 이너박스, 선물세트 케이스 등의 패키지와 라벨·캘린더·포스터 등의 상업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식품, 제과, 생활용품, 위생용품 업체에 포장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1971년 이종상 회장이 창업했으며 2006년 11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 2007년 1월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04년부터 창업주 이종상 회장의 2세인 이수영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올 매출 목표액을 수지사업부분 580억원, 인쇄부분 320억원 등 900억 원으로 잡고 있다. ☺

한진피앤씨 사옥 전경

